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27일 제주시 이도동 키즈빌어린이집 원아들이 한복을 입고 세배 연습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내 정치권 대선 승리에 화력 집중

3월 대선결과 6월 지방선거에 직접 영향 불보듯
도지사 후보들은 유리한 고지 점령 행보 가속화
교육감 선거 현역VS단일화 후보 대립구도 전망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과 제주도교육감, 도의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관련기사 2·3·6면

제주지사와 제주도교육감, 도의원 43명(지역구 31명·비례대표 7명·교육의원 5명)을 선출한다. 6월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 83일만에 열리기 때문에 대선 결과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곧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내각인선도 이뤄진다. 5월초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들어가기 때문

에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방선거는 ‘묻지마 줄투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도내 정치권에서는 대선 승리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제주지사 후보들은 대선 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물밑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제주지사 자리’를 놓고 현재 10여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김태석 도의원, 박원철 도의원, 문대립 전 JDC 이사장 등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성유 전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장, 허향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등이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의당 제주도당 고병수 전 도당위원장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박찬식 공동대표가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현재 다자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석문 대 도전자(?)’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도전자들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향후 선거 판세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전자들의 구체적인 단일화 방법에 대해선 설 연휴가 끝난 후 논의될 예정이다.

현 43명의 제주도의원·교육위원 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3명(지역

구 2명·비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도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현재 도의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구 도의원 2명과 비례대표 1명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 2018년 제주도의원 2명 증원에 이어 이번에 다시 증원을 요청하고 있어 국회동의는 그리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도의원 3명 증원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제주도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교육위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월 국회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가 사라지게 된다. >>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교육의원 16년만에 폐지 가시화

민주당, 폐지 당론... “2월 15일 이전 처리”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에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 교육위원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존속되어온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및 교육의원 폐지와 관련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제주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고 교육의원 폐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 내용은 이날 오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교육의원 폐지 방향으로 내부 조율을 마무리하면서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존속되어온 교육의원 제도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

별자치도특별법이 통과된 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됐고, 2010년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교육의원 일몰제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교육의원 제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교육의원 폐지 법안은 지난 11일 이혜식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정개특위에 상정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도록 했다. 다음달 중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그 전까지 현 교육의원 직위는 유지하도록 했다.

정개특위에는 지방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제주도의원 3명을 증원하는 법안도 상정돼 있다. 제주도의원 정원은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총 43명으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교육위원이 폐지될 경우 도의원을 증원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게 된다.

국회=부미원기자

올해 설 연휴 평년보다 ‘쌀쌀’

올해 제주의 설 연휴는 평년보다 쌀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의 기상 전망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연휴가 시작되는 29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3~4℃, 낮 최고기온 5~9℃로 평년보다 낮은 데다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 춥겠다.

30일과 31일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맑은 날씨로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면서 평년(최저 3℃·최고 8℃)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설 당일인 다음달 1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2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하회하겠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아울러 설 당일인 1일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날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한라일보 임직원 일동 -

설 연휴 가볼만 한 곳 8면

설 연휴 '집콕' 문화생활 9면

설 연휴(29-2월 2일) 신문 쉽니다

제주 코로나19 신규 31
27일 <17시 기준> 누적 5190

농협60주년
60th Anniversary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모두와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하는 100년 농협

NH 농협

서귀포시농축협운영협의회 회장 김성범

농협서귀포시지부 지부장 김현우

대정농업협동조합장 이창철

안덕농업협동조합장 유봉성

중문농업협동조합장 김성범

서귀포농업협동조합장 현영택

효돈농업협동조합장 백성익

위미농업협동조합장 김영근

남원농업협동조합장 김문일

표선농업협동조합장 고철민

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장 강석보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장 김용관